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❺ 대탑 회랑 부조상과 화엄경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 회랑 부조들을 살펴보면 〈화엄경〉 '입법계품'과 연결지점이 많다. 3, 4회랑은 '기승전결'서 '전'에 해당된다.

선재동자 구법 여정 담은 塔회랑 부조상들

보로부두르대탑(Borobuduru Stupa)이 '화엄경탑' 임을 드러내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앞서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십지품'의 각 지를 배대해 서로 상응함을 살펴봤고, 지난 연재에서는 대탑과 〈화엄경〉 '입법계품'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탑의 4개 회랑 중 1회랑과 2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52수행 계위(階位)를 비교했다. 이번 글에서는 3회랑과 4회랑의 부조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회랑에는 53선지식이 등장해 수행계위 52계위인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과 배대돼 있다. 128개 부조상 중 126번째와 127번째 부조상에 등장하는 51번째 선지식 미륵보살과 128번째 부조상의 52번째 선지식 보현보살은 부처의 경계에 거의 다다른 계위인 등각과 묘각의 계위를 선재동자에게 가르치고 체험하게 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회랑과 4회랑 전체에도 각각 다시 출현하고 있다.



대탑 3회랑 71번째 부조상. 미륵보살이 짐승들에게 설법을 하는 장면으로 4회랑에서도 보현보살이 짐승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있다.

3회랑(5층) 부조상 분석

3회랑에는 주벽 88부조상과 난순 88부조상이 조성돼 있다. 주벽이 비정 결과가 확실하고 주요 내용이므로 주벽을 위주로 분석한다. 이 회랑과 관련 내용은 80〈화엄경〉 77권의 끝부분에서 78권, 79권까지로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보리도를 이루는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다. 60〈화엄경〉 58권 중 후반부터 59권에 해당하는데, 이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 3회랑 전부를 할애한 것은 51계위인 등각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3회랑 부조상의 주요 내용은 선재동자가 미륵궁의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한 과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미륵궁 속에서 마침내 선지식을 만나고 미륵궁 세계의 장엄함과 각 정각의 선인과 부처의 경계를 만나는 것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 부조상 전체가 정확하게 비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미륵보살과 선재동자 관련 이야기임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3회랑 부조상 분석 결과는 부조상의 비정에 있어 논란이 있는 4회랑 주벽 부조상 분석에 패턴을 제공하여 53선지식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입법계품 이야기임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점에 맞춰 3회랑 부조상을 간략 분석한다.

3회랑의 ⅢA2는 미륵보살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으로 4회랑 IVA24, IVA25, IVA29, IVA30, IVA63, IVA66의 보현보살의 설법과 같은 유형이다.

ⅢA8는 IVA24와 일치하며, ⅢA9는 IVA51과 동일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A16은 IVA 27 비정하는 패턴을 제공하며. ⅢA40은 드디어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한다.

ⅢA44는 Ⅱ70과 같이 보시하는 장면이며 IVA49, IVA19, IVA52, IVA57, IVA64 부조상과 같은 개념으로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이다. ⅢA45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장면인데 IVA68과 같은 유형이다. ⅢA47에 한 발로 선 미륵보살은 IVA60의 공중을 나는 보현보살의 수행에 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깊이를 보인다.

ⅢA55, ⅢA58은 IVA5, IVA11, IVA22, IVA40, IVA51, IVA63, IVA70 부조상 비정에 단서를 제공한다. ⅢA68에서 보이는 기인들의 등장은 IVA32, IVA33와 같은 개념이며 ⅢA74과 IVA31는 똑같이 용신들이 등장하고 있다.

ⅢA71에서 동물들이 미륵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은 IVA55에서 동물들이 보현보살을 친견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위에서 3회랑 주벽의 비정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4회랑 주벽의 30개 이상의 부조상이 3회랑과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3회랑 역시 4회랑과 유기적 관계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회랑은 선재동자가 그간의 수행 결과를 확장해 입법계품의 52계위 중 미륵보살에게 등각의 가르침을 받는 곳으로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한다.

4회랑(6층) 부조상 분석

4회랑은 마지막 회랑으로 탑의 6층이다. 2회랑 주벽 128부조상 중 마지막 128번 부조상에 변상화돼 있는 53선지식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52수행계위의 마지막 계위인 묘각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임으로 4회랑 전체를 할당해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부조돼 있음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쉬(Bosch)를 비롯한 영향력이 있는 선행학자들은 4회랑 주벽을 '보현행원찬'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로부두르대탑 설명서와 박물관 설명서에는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공식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 3·4회랑서 이어져
선지식 만나 깨달음 얻는 내용 재현돼
3·4회랑 부조들 유사한 컨셉들 확인
수행계위의 '기승전결'서 '전'에 해당돼

크롬(Krom)은 3회랑 부조상에 대해 미륵보살의 출현을 확실시하였으나 3회랑 부조상 19번을 보현보살 출현으로 비정하고, 거기서부터 '입법계품'이 아닌 '보현행원찬'의 내용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의 제시는 이후 보쉬가 4회랑 주벽을 보현행원찬으로 비정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현행원찬이 〈화엄경〉류로 분리돼 대탑이 화엄탑임을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불지에 이르는 체계적 수행의 계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전통 〈화엄경〉의 화엄계위적 입장에서는 '보현행원찬'을 화엄계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현행원찬'은 인도승 불공(不空, Amoghavajra)이 746년에서 774년 사이에 산스크리트본을 한역 역경한 경전이다. 그 후 이역으로 반야삼장에 의해 40〈화엄경〉이 편찬된 시기에 40권에 편입된 보현행원의 중송분이 있다. 40〈화엄경〉은 본래 이름이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이다.

특히 40〈화엄경〉마지막 40권에 보현보살 10대 행원과 중송분(보현행원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권을 '보현행원품'이라 주로 칭하며 중송분을 '보현행원찬'이라 한다. '보현행원품'은 기존 〈화엄경〉 경전에 없는 내용이다.

'보현행원찬'은 불공이 역경 당시 독립된 경으로 유통됐는데 그 후에도 '보현행원찬'이나 '문수사리발원경' 이름으로 유통됐으며, 반야가 40〈화엄경〉 편찬 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현행원찬'은 독립 경전으로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찬탄하기 위한 게송임을 알 수 있다.

불공이 '보현행원찬'을 역경한 시기 보현보살 10대 행원은 단독 경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는 40〈화엄경〉 역경 전(前)으로 보현보살 10대 행원에서는 선재동자가 등장하여 아미타부처의 세계로 가는 가르침을 받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시기다.

따라서 반야의 중송 부분과 불공의 보현행원찬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고 있기에 원래 보현보살 10대 행원과 '보현행원찬'은 선재동자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쉬가 '보현행원찬'이라 주장한 것은 40〈화엄경〉의 중송분임을 알 수 있다. 보쉬는 선재동자가 거의 다 출현하는 4회랑 주벽 72개 부조상을 '보현행원찬(중송분)'을 이용해 비정을 시도하였다.

그는 4회랑 비정에 있어 보현행원찬 62찬 중에 10개의 찬을 31개 부조상을 비정하였다. 폰테인(Fontein)은 추가로 19찬을 가지고 28부조상을 비정했다. 히카타(Hikata)의 대표적 비정은 57찬을 이용한 72부조상이다. 이들에 의해 보현행원찬 62찬 중 총 35찬이 적용돼 4회랑 주벽 72 부조상 중 60개 부조상이 비정됐다. 그러나 비정의 결과는 일치도와 시각적 일치도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하나의 게송에 여러 부조상에 적용시키기 모호한 비정이 많으며 어색한 장면이 여럿이다.

이러한 비정의 어색함과 보로부두르대탑이 건설시 40〈화엄경〉의 인도네시아 사일렌드라왕국에서의 유통 여부의 불확실성은 4회랑 주벽의 소의경전을 '보현행원찬(중송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화엄경〉 '입법계품'의 계위적 입장에서 4회랑의 부조상의 이야기는 대탑 1,2,3회랑과 유기적으로 연관선상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 회랑의 내용을 수행계위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1회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다가야에서 〈화엄경〉을 설하고 계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기'에 해당하고, 2회랑은 선재동자가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어가는 점차적인 수행계위인 50계위를 보여주는 '승'에 해당하며, 3회랑은 51선지식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법을 자세히 전달하여 51계위 등각에 이르게 하는 계위이다. 3회랑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유기적 측면에서 판단하면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리도에 이르는 법을 설하는 장면들과 법계와 불계에 이른 장면들이 나와야 한다. 이 계위는 52계위의 마지막 묘각의 자리로 불지에 이르러 보현보살과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4회랑의 주벽 부조상 72면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출현하는 장면들로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등장한다는 면에서 '입법계품'과 '중송분(보현행원찬)'이 같다. 그리하여 단순히 부조상을 통해 둘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가 소의경전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조상의 소의경전을 찾기 위해 보현행원찬과 부조상을 서로 대응시켰듯이 입법계품의 보현보살과 선재이야기 경전 내용을 사건별로 구간을 잘 나누고 부조상들 또한 등장인물별로 특징지어 나눠 서로 대응시켜 배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전과 부조상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4회랑 주벽 72부조상을 특징별로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유형 구분은 앞 회랑의 부조상의 유형적 특징 또한 참고하였다.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 중 53번째 선지식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내용을 6가지 패턴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4회랑이 1·2·3회랑과 더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다음 글에서 밝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4회랑이 입법계품 52계위인 묘각의 내용임이 드러난다면 대탑10층이 〈화엄경〉 '십지품'을 재현한 내용과 함께 '화엄경탑'임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아제여행사 대표〉

원스톱 시스템이란?

수 없이 겪는 법당 현장이지만 심오한 사찰 음향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부근 지방 업자들의 단순 기술시공 결과! ..... 염불 스트레스 누적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명품사운드 훈련강사 서울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 최고 시설로 많은 절약과 후회가 없다는 뜻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들어보세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사찰 시설비용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